

## 향산 이만도의 문집 간행과 출판검열

우진웅\*

1. 머리말
2. 향산 이만도의 가계와 생애
3. 『향산집』의 편찬과 간행
4. 『향산집』의 출판검열
5. 맺음말

### 요약

조선말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향산 이만도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이를 부정하며 24일간의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그의 후손들과 제자들은 몇 년 후에 『향산집』을 간행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극심한 저지와 횡포로 간행 도중 중단되었다. 『향산집』은 다시 간행을 위해 1931년에 조선총독부로 보내어 출판검열을 받았다. 이때 보낸 14책 중 6책은 몇몇 문구의 삭제 지시와 함께 출판 허가를 받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8책은 출판 불허가 및 압류 처분으로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후 『향산집』은 일본의 혹독한 감시에서 벗어

---

\* 禹秦雄,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난 1946년에 판각을 시작하여 1948년에 간행하였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문집 출판검열 사례와 1931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여 출판검열을 받은 현전 『향산집』의 특징과 검열 내용을 조사하고,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8책에 대한 기록이 있는 조선총독부 생산 문헌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이만도, 향산, 향산집, 독립운동, 출판검열, 조선총독부

## 1. 머리말

1866년 25세의 나이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지낸 향산(香山) 이만도(李晩燾)(1842~1910)는 뛰어난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병을 일으켜 예안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1910년 국권 피탈을 당하자 이를 부정하며 24일 동안의 단식 끝에 자정순국하였다.

퇴계 이황의 후손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지역의 명문가였다. 조부 이가순-생부 이휘준-이만도-이만규 형제로 이어지는 3대는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만도-이만규 형제-이중업-이동흙-이종흙 형제로 이어지는 3대는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선비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만도의 시문집인 『향산집』은 그가 생전에 편성해 둔 글들을 바탕으로 하여 1916년에 후손들과 제자들에 의해 간행을 시작하였으나 묘비를 훼손하고 문집 목판을 소각하는 일본의 횡포로 인해 간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향산집』은 광복 후인 1946년에 중간(重刊)을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은 19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사전 검열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향산

집』은 ‘직재집直齋集’을 표지서명으로 하여 1931년에 출판검열을 받기 위해 조선총독부로 보내졌다. 그 책 중 일부는 출판 허가를 받고 돌려받아 현재 전해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검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책은 항일 독립운동가의 문집 출판검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목되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향산 이만도에 대한 연구는 한문학, 철학, 독립운동사 등에서 이루어졌으며,<sup>1</sup>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학자나 독립운동가 등의 문집 출판검열에 대한 연구도 『송암집』, 『회당집』 등의 사례를 들어 일부 진행되었다.<sup>2</sup> 이만도는 영남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였지만 그의 문집 간행을 다룬 선행 연구가 없었고, 또한 출판검열을 받은 원본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독립운동가의 문집 출판검열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문집 출판검열 사례와 1931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여 출판검열을 받은 현전 『향산집』의 특징과 검열 내용을 조사하고, 검열 후 받지 못한 나머지 8책에 대한 기록이 있는 조선총독부 생산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박균섭, 「선비의 결단 1910 — 향산 이만도의 삶과 삶, 그리고 퇴계학의 지평」, 『현대 유럽철학연구』 53(한국하이데거학회, 2019); 오용원, 「향산 이만도의 현실인식과 사유 세계」, 『안동학연구』 18(한국국학진흥원, 2019); 이규필, 「향산 이만도의 사유와 시세계」, 『대동한문화회지』 65(대동한문화회, 2020); 박민영, 「향산 이만도의 생애와 순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독립기념관, 2010); 곽진, 「향산 이만도의 자존적 삶과 순국」, 『민족문화』 36(한국고전번역원, 2011); 변창구, 「향산 이만도의 절의정신과 구국운동」, 『민족사상』 9-2(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2 박경연, 「일제하 출판검열에 관한 사례연구 — 신득구의 농산선생문집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23(한국서지학회, 2002); 성봉현, 「일제시기 문집간행과 출판검열 — 송암집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31(한국서지학회, 2007); 우진웅, 「회당집의 간행과정과 간역의 특징」, 『국학연구』 27(한국국학진흥원, 2015).

## 2. 향산 이만도의 가계와 생애

향산 이만도(1842~1910)의 본관은 진성, 자는 관필<sup>觀必</sup>, 호는 향산<sup>嚮山</sup> 또는 직재<sup>直齋</sup>이다. 그는 지금의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출신으로 퇴계 이황의 11세손이다. 퇴계의 셋째 손자로 임진왜란 때 안동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활약한 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추록된 이영도<sup>李詠道</sup>(1559~1637)의 9세손이 된다.

증조부 이귀서<sup>李龜書</sup>(1727~1799)는 경기전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조부 하계<sup>霞溪</sup> 이가순<sup>李家淳</sup>(1768~1844)은 181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부친 복재<sup>復齋</sup> 이휘준<sup>李彙濬</sup>(1806~1867)은 185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에 올랐다. 할아버지 이가순, 아버지 이휘준에 이어 이만도 또한 1866년 문과에 급제하여 3대가 나란히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만도는 1842년에 할아버지가 터를 잡아 은거한 지금의 봉화군 봉선면 동량리에서 이휘준과 어머니 야계송씨 사이의 다섯 아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이휘준은 1843년에 막내 아우인 이휘철<sup>李彙澈</sup>(1824~1843)이 20세에 요절하자 1848년 7세의 어린 이만도에게 대를 잇도록 하였다.

일찍이 부친과 족형 이만각<sup>李晩懋</sup>(1815~1874)에게 가르침을 받아 가학을 계승했고, 1859년 18세 때 봉화 유곡[닭실]의 안동권씨 권승하<sup>權承夏</sup>의 딸과 결혼했다. 권승하와 그의 아우 권연하<sup>權璉夏</sup>는 당대 저명한 학자로 이휘준과 깊이 교류하였으며, 결혼 후 문하에 출입하였다.

1866년 25세에는 8월 진사시에 합격했고 연이어 9월에는 문과에 수석으로 급제하였다. 이때 대사성이었던 생부 이휘준은 “나라가 태평할 때 선비가 벼슬에 나가면 임금을 도와 백성 모두가 잘 살도록 해야

하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며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그 후로는 성군관 전적, 병조 좌랑, 사간원 정언, 홍문관 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때 최익현이 조약을 결사반대하면서 <병자지부복궤소丙子持斧伏闕疏>를 올리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함께 최익현을 공격하였다. 당시 이만도는 사헌부 집의로 있으면서 최익현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대사헌의 미움을 받아 관직까지 삭탈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복직되어 응교, 장예원정을 지내다가 9월에 외직으로 양산군수로 제수받아 모친을 봉양하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고, 탐관오리를 소탕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경상감사와 어사는 그의 치적을 일등으로 보고하였다. 1878년 군수에서 물러나 7월에 집의가 되고 이후 홍문관 응교, 홍문관 부수찬, 사헌부 집의에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1882년 1월에 홍문관 수찬으로 다시 나아가 왕세자의 관례와 초례 등에 참여하였다. 3월에 통정대부에 가자되고 공조 참의에 임명되었으며 곧바로 4월에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공조 참의, 동부승지 등을 제수받았지만 모두 사양하였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더 이상의 벼슬에 미련 없이 귀향을 결심하여 고향에서 학문 수양과 후학을 양성하면서 선비의 삶을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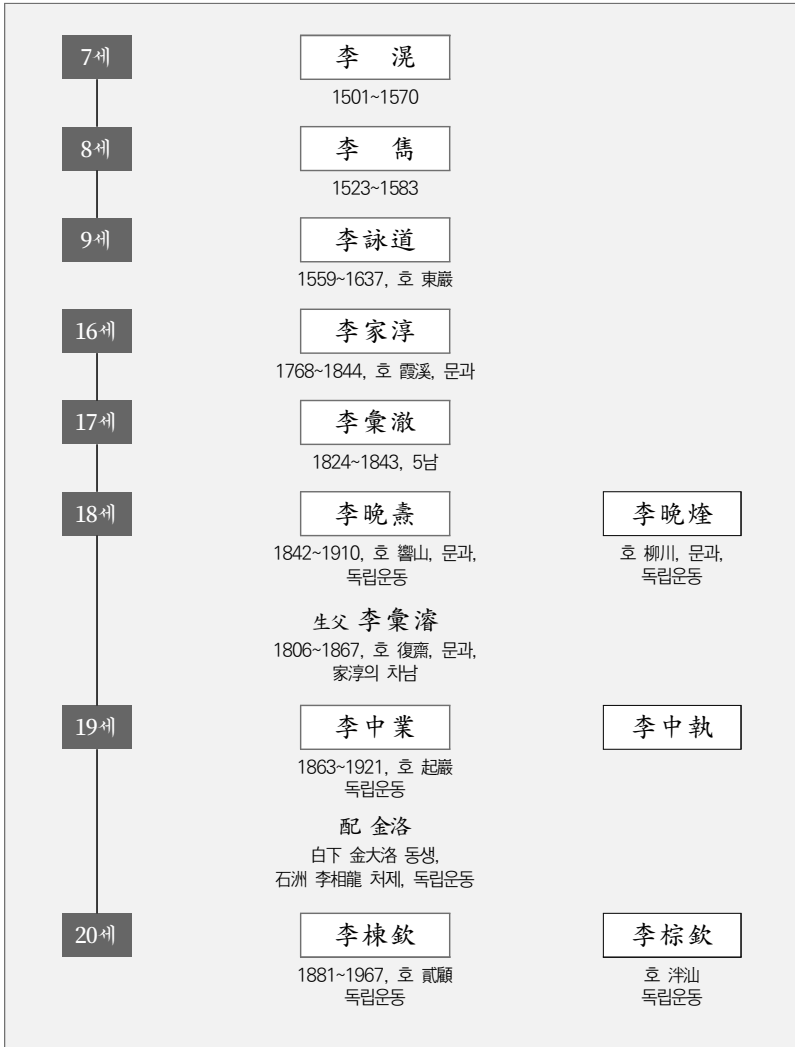
1895년 8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상복을 차려입고 일월산 아래 선영 분암에 은거하면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암 뒤에 있는 국사봉에 올라 서쪽을 향해 망곡하였고, 10월에 명성황후의 국상이 선포되자 영양 관아의 곡반塹에 참여하였다. 11월에는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병을 일으킬 움직임이 안동에서 일어났다. 이만도는 예안 지역에서 결성된 선성의진宣城義陣의 초대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이끌었다. 그러나 고종의

해산 명령으로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고 예안과 영양에 입산하여 지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지탄하는 ‘청참오적소(淸斬五賊疏)’를 올렸으며, 1907년 가선대부, 1910년 자헌대부를 제수받았지만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910년 양력 8월 29일, 일본에 의해 나라가 병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선영으로 가서 통곡하고 유소(遺疏)를 써서 임금께 영결을 알리고 단식을 결심하였다. 9월 17일부터 시작한 단식 이후 수많은 친지와 제자들이 방문하여 문안하였고, 손님을 맞으면서도 평상시와 같은 행동과 글을 지었다. 일본 경찰이 방문해 위협하면서 강제로 음식을 권해도 크게 호통치며 응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손들과 제자들이 울면서 음식 들기를 청하니, “나라의 큰 은혜를 받고도 을미년(1895)과 을사년(1905)에 죽지 않고 입산하여 연명한 것은 그래도 기대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살겠는가.”라고 하였다. 결국 단식 24일 만인 1910년 10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52년 후인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만도의 순국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들은 항일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이만도의 아우 유천(柳川) 이만규(李晩燾)(1845~1921) 또한 뛰어난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1883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910년 단식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같은 길을 걷고자 하였으나 형의 만류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는 일본이 병합을 기념하여 살포한 은사금을 거부하였으며, 1919년 3월에는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면서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유림 대표들이 작성한 ‘파리장서(巴里長書)’에 서명하였다. 이 때문에 구속되어 성주경찰서에서 고초를 겪다가 1921년에 세상을 떠났다.

[향산 이만도의 가계]



이만도는 안동권씨 사이에서 기암(起巖) 이중업(李中業, 1863~1921), 이중집(李中執) 두 아들을 두었다. 이중업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적신을

토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격문을 지어 배포하고 의병장인 부친을 따라 예안 의병에 참여하였다. 1919년에는 숙부 이만규와 함께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중업은 당시 경상도·충청북도·강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유림의 서명을 받는 일을 담당하면서 파리장서운동의 초기부터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중업의 부인 김락金洛(1862~1929)은 이만도의 며느리이자 백하 김대락(1845~1914)의 동생이며,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의 처제였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까지 세 부자의 독립운동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으며, 3.1 운동으로 체포되어 일본의 고문으로 두 눈을 잃고 고통으로 살다가 1929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중업의 아들인 이동흙李棟欵(1881~1967)과 이종흙李棕欵(1900~1976)은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이렇듯 이가순, 이휘준, 이만도·이만규의 3대는 문과에 급제하여 학문과 벼슬로 명성을 떨쳤으며, 이만도·이만규, 이만도의 아들 이중업과 부인 김락, 이중업의 아들 이동흙·이종흙 삼대는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비의 자세를 몸소 보여주었다.

### 3. 『향산집』의 편찬과 간행

이만도는 생전에 자기가 지은 시문을 스스로 편차하여 ‘인출편<sub>人出編</sub>’이라 이름하였다. ‘인출<sub>人出</sub>’은 『논어』의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말이 힘겹지 않을 수 있겠는가’(爲之難 言之得無<sub>得</sub><sub>無</sub><sub>乎</sub>)라고 한 말과 ‘옛사람들이 쉽게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은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라고 한 것에서 따왔다. 향



산가에 전해 내려오던 ‘인출편’은 20책이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하고 있다.<sup>3</sup>

아들 기암 이중업李中業(1863~1921)과 지역 사립들은 이만도가 순국한 지 6년 후인 1916년에 이 ‘인출편’을 바탕으로 하여 19권의 원집을 편성하였고, 제자들과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던 시문들을 모아 6권의 별집으로 엮었다. 여기에 전傳·행장行狀·묘지墓誌·묘갈墓碣 등 부록 2책을 더하여 모두 14책으로 편성하였으며, 발문은 같은 해 죽질 이중철李中轍과 죽손 이강호李康鎬가 지었다.<sup>4</sup> 행장과 묘지명은 류필영柳必永과 권상익權相翊이 1912년에 지었으며, 묘표는 1913년에 동생 이만규, 묘갈명은 1914년에 기우만奇宇萬이 지었다. 또한 아들 이중업이 연보 1책을 별도로 만들어 손후익孫厚翼이 산정하였다. 그리하여 『향산집』은 1916년 4월에 백동서당<sup>5</sup>에서 간역을 시작하였다.

간역 기간 중 지역 인물들의 일기에 수록된 『향산집』 간행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전주류씨 함벽당涵碧堂 류경시柳敬時的 주손인 류영희柳泳熙(1890~1960)가 쓴 1911년 6월 20일 일기에는 “『향산집』을 편성하여 책으로 만들었는데 대상大祥 전에 간행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책의 수가 20여 책에 이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기록<sup>6</sup>이 있어 대상일인 1912년 10월까

3 『진성이씨 향산고택』(한국국학진흥원, 2020), 87쪽.(이 책에는 거의 모든 장에 교정한 흔적이 있다. 이만도의 친필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향산집』 ‘발문’.

5 백동서당은 퇴계 이황의 아들인 이준이 세운 서당으로 이만도가 52세인 1893년에 남아있는 터에 다시 지었다.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하계정 근처에 있다. 이만도는 이곳에서 유숙하면서 학문 활동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6 柳泳熙, 『求新錄』, 1911. 6. 20.(陽 聞下溪響山集方爲編摩 以爲三祥前刊布計 卷秩多至二十餘冊云 且公卒後幾日)

지를 목표로 정해 간행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16년 1월 9일에 이중업이 사돈에게 쓴 편지에는, “부친의 문집 간역은 1월 12일에 시작하며, 곧 분판分板한다”는 기록<sup>7</sup>이 있어 본격적인 판각 작업을 하기 위해 1916년 초에 각수들에게 목판을 분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과 횡포에 반대하며 목숨 바친 이만도의 문집 간행을 좌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강제 병합 후 순국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이만도의 후손이나 제자들의 항일정신과 독립 의지를 꺾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만도의 글과 정신을 담고 있는 문집이 간행·보급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경찰은 1916년 9월 『향산집』의 목판을 불사질렀고, 심지어 묘비까지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향산집』 간행 작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류영희가 쓴 1916년 9월 16일 일기에는 “『향산집』을 간인刊印하지 못했는데, 4권의 목판을 일본 경찰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문斯文의 재앙이다”<sup>8</sup>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일본이 목판을 빼앗은 시기는 9월 중순 이전이며, 그때까지 모두 4책 분량을 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중업의 처 김락이 1919년 예안 만세운동 후 안동 헌병수비대에 끌려가 고문으로 두 눈을 잃게 되었으며, 10여 년 동안 고생하다가 1929년에 생을 마감했다. 이중업도 1920년 10월까지 투옥되어<sup>9</sup> 석방 후 9개월 동안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21년 7월,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도 이만도의 후손과 제자들은 일본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

7 1916년 1월 이중업 간찰(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01쪽.

8 柳泳熙, 『征邁錄』, 1916. 9. 16. (『響山集』不得刊印 而四卷板見奪云 斯文之厄)

9 ‘1920년 음력 8월 11일에 이중업이 아들에게 쓴 옥중편지(한국국학진흥원 소장)에는 음력 9월 5일에 출옥할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중업의 구속 날짜는 불확실하다.

대상이었기 때문에 『향산집』의 간행은 더욱 어려워졌다. 또 몇 해 가지 않아 1926년 5월에는 이증업의 차남 이중흙이 독립운동자금 모금 활동을 한 일로 두 아들이 모두 잡혀가는 등 잦은 탄압과 가택 수색을 당하였다. 이후 이증업의 처인 김락의 삼년상을 마치고 1930년대에 이르러 다시 『향산집』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이때 향산의 손자 이동흙이 원집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여 1931년에 저자의 족질 이중균(李中均)이 원집의 발문을 지었고, 1933년에 권노섭(權魯燮)이 별집의 발문을 지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조선총독부의 출판검열에서 허락을 받지 못해 문집 간행을 하지 못하다가 해방 후인 1946년에 판각을 시작하여 1948년에 원집 19권, 별집 6권, 부록 2권으로 간행하였다.<sup>10</sup>

『향산집』의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향산집』의 권별 구성】

- 卷1 : 詩(147)
- 卷2 : 教(1), 疏(6), 劄(1), 經筵講義, 啓(2)
- 卷3~6 : 書(201)
- 卷7~8 : 雜著(15)
- 卷9 : 序(25)
- 卷10 : 記(16), 跋(25)
- 卷11 : 銘(1), 箋(1), 上梁文(2), 祝文(11), 祭文(10)
- 卷12 : 碑(7), 墓表(6), 墓誌銘(10)

---

10 지금까지 향산집의 간행시기는 여러 목록에서 발문 기록에 의해 1933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간행 필사본인 『향산집』 부록의 年譜에 ‘을유(1945) 7월에 일본이 망했다’는 기록에 이어 ‘병술년(1946) 문집을 중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향산전서』(한국국학진흥원, 2007)의 현손이 지은 서문에 1946년에 중간을 시작하여 1948년에 판각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다.

- 卷13~15: 墓碣銘(65)
- 卷16~19: 行狀(31)
- 別集: 卷1 詩(71)
  - 卷2 書(60), 雜著(3)
  - 卷3 序(10), 記(24)
  - 卷4 跋(18), 祝祭文(10), 傳(1), 碑(3), 墓表(7), 墓誌(3)
  - 卷5 墓碣銘(25)
  - 卷6 行狀(18)
  - 跋文(權魯燮)
- 附錄: 卷1 行狀(柳必永), 墓誌銘(權相翊), 墓碣銘(奇宇萬), 墓表(李晚奎)
  - 卷2 家傳(李中業), 跋文(李中轍, 李康鎬, 李中均)

#### 4. 『향산집』의 출판검열

##### 1) 일제의 출판검열 정책과 사례

일본은 조선 통치의 수단 중 하나로 1909년 2월 <법률 제6호>로 ‘출판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검열토록 하였다.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나 상속자, 발행자의 도장을 찍은 원고본을 지방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보내어 검열을 거친 후 출판 허가를 받아야 했고, 출판 허가를 받은 원고본은 돌려받았다. 출판한 후에 최종 출판물 2부를 내부에 납부해야만 했다.<sup>11</sup>

---

11 문서 도서를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와 발행자가 連印하여 稿本을 첨가, 지방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맡아야 하고(출판법 제2조), 제2조의 허가를 받아 문서 도서를 출판한 후에는 즉시 제본 2부를 내부에 납부해야 함(출판법 제5조).

출판물의 검열은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학무국에서 처리했다. 지방의 해당 경찰서로 이관시키기도 했으나 그 과정과 내용을 조선총독부에 보고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열의 모든 과정은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검열의 과정은 출판사 또는 발행인(발행 주체)이 출판 원고를 제작하여 조선총독부의 도서과에 제출했다. 담당관은 이를 검수하고 검열 내용을 해당 저작자나 출판사로 보내어 수정하게 한 뒤에 출판 허가 통보서를 보냈고, 출판사나 저작자는 이를 반영하여 출간하였다.<sup>12</sup>

출판검열의 기준은 일제가 정한 “일반검열표준”으로 제1 안녕질서(치안방해의 사항) 28조 항의 27조 중 ‘23~27’까지가 조선인의 출판을 탄압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조선의 독립을 선동하거나 그 운동을 시사하고 또는 이것을 상양(賞揚)하는 사항,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독립을 시사 선동하고 또는 이것을 선전하여 일본인 및 조선인의 융화를 저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조선 민족 의지를 드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사항, 조선총독의 위신을 훼손하고 조선 통치의 정신에 배반하는 것 같은 사항, 조선 민족의 경우를 곡설하고 이들을 모욕하고 기타 조선 통치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었다. 이 법조문은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출판검열의 목적이 출판을 통해 고양될 수 있는 조선인의 독립 의지 저지와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출판검열을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제시기 출판검열을 담당한 기관은 처음에는 총독부 경무국

12 유춘동,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 검열본과 납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과 의미」, 『서지학연구』 75(한국서지학회, 2018), 182쪽.

고등경찰과 도서계 소관이었고, 1926년 4월부터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1928년 조선인 발행 출판물 허가 건수는 1,321건이었으며, 그중 문집출판은 31건이었다. 1936년 조선인 발행출판물 허가 건수 2,272건 중 문집출판이 108건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나 이 시기 조선인 발행출판물 허가 건수 가운데 문집 출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에 불과했다.<sup>13</sup>

이 시기 조선에서 출간된 한문 자료들, 특히 ‘족보’와 ‘유목 문집’은 식민지 검열 당국이 전통자료의 통제를 통해 반일사상 뿐 아니라 조선의 구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중화 인식까지 함께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4</sup>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에 저항했던 항일 독립운동가의 문집도 출판을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거쳐야 했다. 당시 독립운동가의 문집은 적지 않게 간행되었으나 총독부에 보내서 돌려받은 검열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 중 『회당집』과 『송암집』의 사례를 살펴보자.

『회당집』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회당 장석영(1851~1926)<sup>15</sup>의 시문집으로 조선총독부의 출판 허가를 1930년 11월 7일에 받고, 1932년에 43권

13 성봉현, 앞의 논문, 63~65쪽.

14 한기형, 「식민지검열의 한문자료 통제 — 조선총독부 도서과 간행물의 검토」, 『민족문화』 40(한국고전번역원, 2012), 116~117쪽.

15 장석영은 1905년 이승희·곽종석과 함께 ‘講斬五賊疏’를 올려 을사오적의 처형을 촉구했으며,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칠곡 지역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19년에는 파리장서 초안문을 작성했으며, 성주 만세운동으로 구속되었다. 1925년에는 제2차 유림단 운동의 영남 대표로 활동하였다. 1977년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 1980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22책으로 발행하였다.

1932년에 간행된 『회당집』은 1930년 9월 17일 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 보내졌고, 총독부에서는 이를 접수하고 일일이 검열하여 3~4개월 후인 1930년 11월 7일에 출판 허가를 하였다.<sup>16</sup>

이때의 검열본 11책 중 삭제 지시한 부분은 4곳으로, 1911년 12월 24일 자신의 회갑을 맞이하여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조국도 망하였는데 자식들이 바치는 술잔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의 시,<sup>17</sup> 1919년 면우 곽종석의 별세 후 지은 만사(「挽郭鳴遠」[鍾錫]) 중 일부로, 주요 내용은 ‘천왕께서 천거하였고’에서부터 ‘파리장서로 대의를 펼쳤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sup>18</sup> 또한 1925년 권상익(權相翊)(1863~1935)에게 보낸 편지 중 고종의 서거에 따른 상복 문제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담은 내용,<sup>19</sup> 1910년 장석영이 일본 경찰에게 보낸 편지 부분이 삭제 지시되었다.<sup>20</sup>

비슷한 사례로 『송암집(松菴集)』의 출판검열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송암

16 우진웅, 앞의 논문, 352쪽.

17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조국도 망하여 없어진 것을 생각하니 자손이 바치는 잔도 받고 싶지 않다(念父母不在 宗國淪亡 不欲受子孫稱酌).”

18 “천왕께서 천거하셔서 구중궁궐에서 홀로 宣對하였네. 만백성 시달림은 심하고 구름 낀 하늘에 보슬비만 바라보았네. 큰 혼란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 벼슬을 내놓고 궁벽한 오두막으로 왔네. 왕국의 기강은 드디어 땅에 떨어지고, 늙은 신하는 슬피 곡하였네. 大義를 어디서 펼칠까, 서방에 편지를 보내었다네. 그 정성이 천지를 움직여 아버지옥에서도 죽지 않으리라(天王下旌招 九重宣對獨. 萬生憔悴甚 雲天望霖霖. 巨渾誰能救 歸臥窮山屋. 王綱遂隕地 老臣哀哀哭. 大義何處伸 歐西送尺牘. 精誠動天地 不死阿鼻獄.)”

19 “太上께서 50년 동안 군림하신 은혜가 있고 오백년 종사의 신민으로서 원수와 손잡은 적이 없기에 복을 입고 哭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어 상복을 입었으며, 당시 노인들의 말도 대개 이와 같았고 그 뜻도 所在가 있습니다.(…)”

20 우진웅, 앞의 논문, 355~357쪽.

집』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중화(崔鍾和)(1859~1918)<sup>21</sup>의 시문집이다.

『송암집』은 1935년 2권 2책의 석인본으로 간행되었는데 2권 2책 중 검열을 위해 별도로 만든 고본 권1의 1책만이 검열을 받고 권2는 검열을 받지 않고 출판하였다. 삭제 당한 내용은, 크게 전체 삭제와 부분 삭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삭제는 조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낸 글<sup>22</sup>, 임진왜란 시 왜적에 항전하거나 적개심을 표현한 글<sup>23</sup>, 일제 강점 및 시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sup>24</sup>, 일제시기 의병에 관한 글,<sup>25</sup> 임란 의병에 관한 글, 열강의 침탈에 관한 내용, 백제에 대한 회고의 글 등이 삭제 지시되었다. 부분 삭제는 왜적을 쳐서 복수해야 한다는 글, 조선의 처지가 이적의 노예가 되었다는 글, 일본에 대한 표현을 강구(強寇)·구적(寇賊)·외구(外寇) 등으로 표현한 것이 삭제 지시되었다.<sup>26</sup>

21 최중화의 자는 鳳汝, 호는 松菴, 본관은 강화이다. 1859년 충남 연기에서 아버지 崔翰教와 어머니 전주최씨 崔台衡의 딸 사이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수원농림전문 학교(현 서울대 농과대학)를 다니다가 고향인 가평으로 내려가 1919년 3월 15일 가평 일대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이튿날, 체포된 동지의 석방을 위한 시위에 다시 참여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순국하였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2 [예] ‘임금의 원수를 갚지 못하여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詩: 寄李思中裕興]

23 ‘龍山에 눈물 뿌리며 형제가 맹서한 바 한창으로 백성의 원한을 풀고자 했도다 장한 기개는 千秋에 인륜의 기강을 세우고, 큰 이름은 오늘날 임금의 은혜 무겁도다.’ [詩: 奉和丹陽李氏延謚云]

24 ‘지금 태극의 기울어짐을 누가 능히 붙잡으며, 純坤이 이미 오래됨을 누가 능히 회복하며, 人倫의 綱常이 끊어짐을 누가 능히 밝히며, 禽獸가 사람을 해침을 누가 능히 구제하겠습니까.’ [書: 上勉菴崔丈益鉉]

25 ‘이 오랑캐가 임금을 핍박하는 때를 당하여 어찌 義兵을 일으켜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바른 세상으로 돌이키고, 臣民의 원수를 깨끗이 치워버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書: 答張道三 壬學丙申]

26 성봉현, 앞의 논문, 73~77쪽.



## 2) 『향산집』 검열본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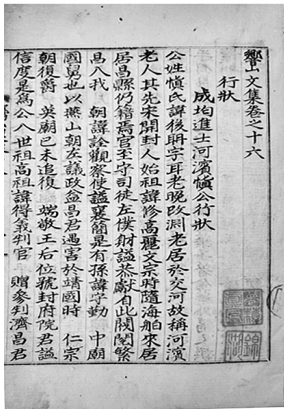
『향산집』을 출판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후 돌려받은 검열본 3책은 ‘직재집直齋集’<sup>27</sup>이라는 표지서명으로 전해 내려왔다.<sup>28</sup> 3책 중 원집은 2책(권16~17, 18~19)이며, 별집은 1책(권3~4)이다.

제9책(권16~17)을 기준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28.5, 가로 18.5cm이다. 판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과사畵寫되어 있고 계선界線이 있다. 한 면당 10행 22자이다. 판심 부분은 상하향흑어미로 판심제는 ‘향산집響山集’이지만 없는 부분도 있다. 표지서명은 ‘직재집直齋集’이며, 권수제는 ‘향산문집響山文集’이다. 표지서명 ‘직재집’ 아래에 책차는 ‘卷之[ ]’로 표기되어 있다. 보통 책차는 숫자만 기록하지만 ‘卷之’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본문 내의 권차 또한 ‘卷之[ ]’로 표기되어 있다. 전체 책수와 관련하여 표지의 우측 하단 부분에는 ‘通14’로 표시되어 있어 검열본은 모두 14책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모든 장과 장 사이에 걸쳐서 ‘계인契印’이 찍혀져 있다. 계인은 현재도 공문서의 계약에 사용되는 ‘간인閏印’과 같은 것으로 검열 후 해당 장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7 이만도의 호는 ‘향산’으로 잘 알려졌지만 ‘直齋’ 또한 그의 호이다. 그는 1866년 9월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867년 1월에 고종의 허락을 받아 과거급제 인사를 위해 남향하기 전 생부인 이휘준을 문안하였다. 이휘준은 이만도의 단정하지 않은 머리를 보며, “머리 모양이 어찌 바르지 않느냐? 머리는 신체 중에 가장 으뜸이니, 으뜸이 곧아야 몸 전체가 따라서 바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 이휘준은 조정으로 돌아가다가 단양에서 생을 마쳤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870년 생모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당부한 머리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 ‘直齋’라는 이름을 거처하는 방에 달고 자호로 삼았다(『響山集』附錄 卷2, 家傳[李中業]).

28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 중이며,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3책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3장에 언급하였다.



[사진 1] 『향산집』 검열본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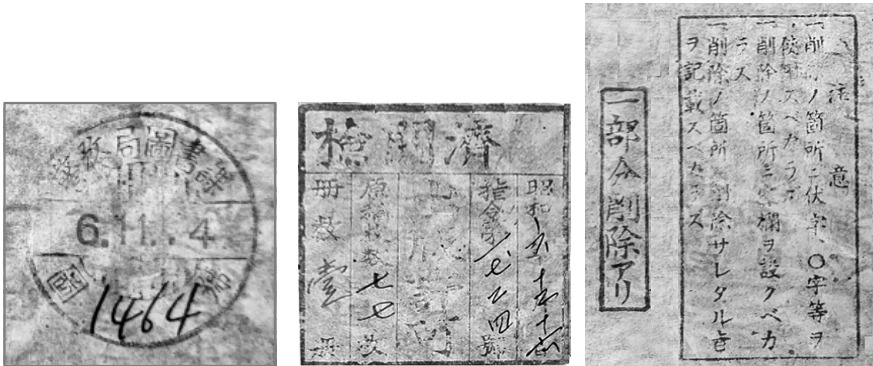
검열본은 표지에 공통으로 4개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 하나는 사각형의 붉은색으로 찍은 ‘검열제檢閱濟’와 그 아래 5칸에 ‘소화 6년(1931) 12월 16일-지령 제1724호-출판허가-원고매수-책수(1책)’가 표기되어 있다. 원고매수를 제외하고는 3책의 내용이 모두 같다. 원고매수는 원집 제9책 79매, 제10책 77매, 별집 제2책 73매이다. 그 우측 아래에 남색의 원형으로 ‘경무국도서관警務局圖書課’와 그 아래에 ‘6. 11. 4.’<sup>29</sup>이 찍혀져 있으며, 도서번호<sup>30</sup>는 ‘1464’로 표기되어 있다. 좌측 2개의 붉은 도장은 ‘일부 삭제 있음’과 삭제된 곳에 대한 ‘주의’ 지침을 표기한 것이다.<sup>31</sup> 이러한 표지 기록을 통해 『향산집』은 일본의 출판 정책에 따라 검열을 위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보내졌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29 소화 6년(1931년) 11월 4일.

30 ‘圖號’라 표기됨.

31 ① 삭제한 곳에 伏字, ○자 등을 사용하지 말 것. ② 삭제한 곳에 공란을 設하지 말 것. ③ 삭제한 곳에 삭제한 뜻을 기재하지 말 것.

접수하여 1931년 11월 4일에 경무국 도서관 도장을 찍은 후 일본의 조선 통치에 저해되는 내용이 있는지 일일이 사전 검열하였고, 1931년 12월 6일에 출판을 허가하여 책들을 돌려주었다.



〔사진 2〕 『향산집』 검열본의 표지 도장 (도서번호-검열제-삭제부분 주의)

검열하면서 삭제 지시한 방법을 보면, 해당 문구나 단어가 있으면, 그 행의 맨 위에 한자로 ‘삭제削除’ 두 글자가 표기된 붉은색 도장을 찍었다. 또한 삭제와는 별도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도장을 찍지 않았으나 해당 문구나 단어에 붉은색 필기구로 둥근 원이나 줄을 그려 표시하였다.

3책 중에서 붉은색 타원형으로 ‘삭제’라는 문구를 넣어 삭제 지시한 부분은 9곳이다. 이 중 8곳은 ‘금상<sub>今上</sub>’, ‘성상<sub>聖上</sub>’과 같이 조선의 임금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나머지 한 곳은 별집 권4에 수록된 것으로 임진왜란 시 의병으로 활동했던 이승<sub>李承</sub>(1552~1596)의 묘비명(청취당이선생묘비명<sub>淸曄堂李先生墓碑銘</sub>) 중 이승이 임종 직전 자제들에게 남긴 유언으로, 의병으로 임진왜란에 참여했으나 조선이 당한 치욕을 갚아주지 못했음을 표현한 부분이다.<sup>32</sup>

〈표 1〉 『향산집』 ‘삭제 지시’ 부분

책차	권차	수 록	수록 위치 <sup>33</sup>	삭제 지시 부분
9	권16	靑松都護府使兼…李公行狀 [李教英]	36장 10행	聖上
	권17	成均進士虛舟金公行狀 [金汝煜]	18장 9행	聖上
10	권18	族兄…溪西公家狀 [李晩松]	30장 17행	今上
	권19	生考復齋府君行錄 [李彙瀾]	9장 19행 14장 19행	今上 聖上
별집 2	권3	密陽卞氏族譜序	7장 10행	今上
	권4	崔孝子傳 [崔震樞]	23장 6행	聖上
		晴暉堂李先生墓碑銘	28장 20행~ 29장 1행	謂諸子曰吾倡義 從戎未雪國耻是可 恨無一言及家事
권4	宋在璣墓表	33장 4행	今上	

다음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16곳으로, 주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글들이 많다. ‘임진선무훈(壬辰宣武勳)’,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다’, ‘임진년에 외침이 발발하자 모친을 모시고 황학산으로 들어가다’, ‘의병을 일으키다’, ‘임진’, ‘정유’, ‘금성(金城)에 들어가 왜적을 토벌한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송암(金松庵) 선생과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격파하였다’ 등이다. 또, 조선 임금과 명나라의 은혜를 나타내는 부분(上之, 皇恩), 공경의 의미로 한 칸을 비워 공란으로 둔 것(我朝, 聖朝, 本朝), 기타 복제와 관련해서 ‘역법을 고치고 복제를 바꾸다’라는 문구, 저자의 성명 ‘이만도’에도 붉은색 표시가 있다.

32 “‘내가 의병을 일으켜 전쟁에 참여했으나 나라가 당한 치욕을 갚아주지 못했던 것이 한이다.’ 라고 하면서 집안일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諸子曰吾倡義從戎 未雪國耻 是可恨 無一言及家事).”

33 수록의 위치는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향산집』 ‘붉은색’ 표시 부분

책차	권차	수 록	수록 위치	‘붉은색’ 표시 부분
9	권16	青松都護府使兼…李公行狀 [李教英]	38장 18행	改正朔易服
	권17	成均進士虛舟金公行狀 [金汝煥]	13장 9행	壬辰宣武勳
		城隱申公行狀 [申尙]	13장 16행	在矢石中辛丑訓導公
			28장 9행	壬辰外訂奉母夫人入黃鶴山
		28장 11행	倡起	
별집 2	권3	密陽卞氏族譜序	7장 5행	我朝, 聖朝
		孝子贈教官文公旋閭記	22장 5행	眞城李晚燾也
		永慕齋記	30장 6행	本朝
			31장 2행	壬辰
	謙齋記	41장 11행	丁酉	
	권4	實圃徐公行狀後敘	5장 10행	上之
		卓溪金公家狀後識	8장 5행	壬辰
		東巖先生祝文	15장 16행	皇恩
		古阜郡守李繼孫祭壇碑銘	26장 12행	金城有討賊功
		晴暉堂李先生墓碑銘 [李承]	28장 14~15행	壬辰難與金松庵先生倡起義 旅擊破知禮, 金山茂溪等賊

### 3) 『조선출판경찰일보』에 실린 『향산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열본은 전체 14책 중 본집 2책과 별집 1책을 포함한 3책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전해지고 있으며, 계명대 동산 도서관에 3책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본과 표지서명과 검열 도장, 날짜의 연월일까지 표기가 같은 동일한 검열본이었다.<sup>34</sup>

34 계명대 소장본의 삭제 지시된 부분은 ‘今上’, ‘聖上’ 등 조선 임금을 나타내는 몇

계명대 소장본 3책 중 2책은 원집으로, 책차는 5~6(권8~9, 권10~11)이며, 나머지 1책은 별집으로, 책차는 별집1(권1~2)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과 책차와 권차를 비교해보면 <표 3>과 같이 중복 부분은 없었다.

<표 3> 현전 『향산집』 검열본

구분	표지서명 / 책차	권수제 / 권차	소장
1	직재집 / 권지5	향산문집 / 권8~9	계명대
2	직재집 / 권지6	향산문집 / 권10~11	계명대
3	직재집 / 권지9	향산문집 / 권16~17	한국국학진흥원
4	직재집 / 권지10	향산문집 / 권18~19	한국국학진흥원
5	직재집 / 별집1	향산문집 / 별집 권1~2	계명대
6	직재집 / 별집2	향산문집 / 별집 권3~4	한국국학진흥원

그렇다면 『향산집』의 검열본은 왜 6책밖에 남아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던 중 『조선출판경찰월보』에 『향산집』 검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서 1928년부터 약 10년 동안 출판물을 검열하고 행정처분(불허가 차압 및 삭제) 내용을 기록한 월간간행물이다. 1932년 1월에 발행한 제40호에는 1931년 12월 출판물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과 처분 이유가 수록되어 있었다.

『조선출판경찰월보』 제40호의 <(출판)불허가 차압 및 삭제 목록>에는 전체 19건의 출판물이 있는데, 주로 『삼천리』·『동광』·『신동아』 등 잡지가 대부분이지만 문집으로는 유일하게 ‘직재집’이 포함되었다. ‘향산집’

부분만 있었다.

이 아닌 표지서명인 ‘직재집’이라 이름하였다. 몇 장을 넘겨 <불허가차압 및 삭제목록>에는 ‘직재집’ 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였다.

- 제호 : 直齋集 全 8冊
- 종류와 사용 문자 : 漢文 遺稿
- 처분년월일 구별 : 昭和 6. 12. 16. 不許可
- 발행지 : 京城
- 발행자 : 朴淵祚

위와 같이 불허가 차압된 책의 제호는 ‘직재집 8책’이다. 주목할 점은 안동이 아닌 발행지는 ‘경성’이고 발행자 또한 직계 후손이 아닌 ‘박연조 朴淵祚’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sup>35</sup>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더 정확한 조사를 해보아야겠지만 당시 집안 내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일본의 지독한 감시로 인해 지역을 피해 경성에서 간행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한 연월일은 소화 6년 12월 16일 즉, 1931년 12월 16일이며, 이 8책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실린 이 날짜, 1931년 12월 16일은 앞서 언급한 현재 전하는 6책의 검열본 표지에 기록된 출판 허가를 받은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

35 박연조는 1931년 9월에 발행한 『曲阜聖廟慰安事實記』(신원활자본)의 발행자였으며, 경성부 익선동 85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이 책은 1930년 공자 사당이 兵火로 피해를 입자 위문하기 위해 그해 12월에 곡부를 방문했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告由 예식을 마치고 촬영한 박연조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박연조의 사진 설명에는 ‘조선유림대표’로 설명되어 있다(『곡부성묘위안사실기』, 1931년 9월 발행). 또한 당시 省齋 權相翊(1863~1935)이 박연조에게 쓴 편지에 “중국에 가서 공자묘에 배알하고 여러 사대부들과 배운 바를 익히며 산천과 성대한 인물을 보고 온 일을 공경한다.”(『省齋集』 卷4 書, 答朴淵祚)라는 기록이 있으나 총독부 문서에 기록된 박연조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록된 8책은 불허가 처분, 돌려받은 6책은 허가 처분을 받아 발행 주체에게 돌려주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판물의 불허가 차압 및 삭제 이유를 적시한 <불허가 차압 및 삭제 출판물 요지>에는 “직재집은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이만도의 유고로 이만도는 을사조약 때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킨 일이 있으며 병합이 되자 단식하여 자결한 자로, 치안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불허가 차압에 대한 요지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直齋集』 14冊, 京城 朴淵<sup>36</sup>

본 문집은 14책 중 권1·2·3·4·5·6·7·8, 부록 1, 별집 3, 합계 8권이 불허가되고, 또 삭제에 부처지게 된 것이다. ‘직재집’이란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이만도의 유고이다. 그는 일찍이 일본과의 5개 조약 성립 때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반항한 일이 있다. 또 일한병합이 성립되자마자 격렬한 상소문을 남기고 단식하여 자살한 자로, 그 내용은 모두 치안 방해에 판단되는 것이다.

위의 출판 <불허가 차압 및 삭제 출판물 요지>에서 직재집 8책<sup>37</sup>은 ‘권1·2·3·4·5·6·7·8, 부록 1, 별집 3이 불허가 차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책의 표지에 책차를 나타내는 ‘卷之’와 본문 내에 권차를 나타내는 ‘卷之’가 똑같이 쓰여 <불허가 차압 및 삭제 출판물 요지>의 숫자가 책차인지 권차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맨 뒤에 ‘부록 1’, ‘별집 3’이 기록되어 있는데, 6권 3책의 별집 중 권3은 현재 전해지고 있지만 책차 3은 전해지지 않는다. 책차 1일 것으로 추정되는 2권 1책의 부록

36 서명-책수-발행지-발행자(위 발행자 목록에는 ‘박연조’로 되어 있음)

37 ‘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책수를 나타냄.



또한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1~8 또한 권차가 아닌 책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책차 5~6(권12~15)은 목록자가 실수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8은 계명대 소장 검열본과 중복되는데, 별도의 1책이 있었거나 원래 권7만 있는 것을 목록자의 실수로 표기했을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해 현전 『향산집』 검열본과 출판검열에서 불허가 차압 조치로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검열본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현전 검열본과 ‘출판 불허가 차압’ 목록

표지서명 / 책차	권수제 / 권차	비고
[직재집 / 권지1]	[권1~2]	출판 불허가 차압
[직재집 / 권지2]	[권3~4]	
[직재집 / 권지3]	[권5~6]	
[직재집 / 권지4]	[권7~8]	
직재집 / 권지5	향산문집 / 권8~9	계명대 소장
직재집 / 권지6	향산문집 / 권10~11	
[직재집 / 권지7]	[권12~13]	출판 불허가 차압
[직재집 / 권지8]	[권14~15]	
직재집 / 권지9	향산문집 / 권16~17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직재집 / 권지10	향산문집 / 권18~19	
[직재집 / 부록1]	[권1~2]	출판 불허가 차압
직재집 / 별집1	향산문집 / 별집 권1~2	계명대 소장
직재집 / 별집2	향산문집 / 별집 권3~4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직재집 / 별집3]	[권5~6]	출판 불허가 차압

『조선출판경찰월보』에서는 『향산집』 8책의 내용 중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이완용 등 5명이 허락한 부분, 이에 분개하여 민영환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부분” 등의 기록을 치안을 방해하는 기록으로 보고 불허가 처분의 한 예로 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례-例】

: 일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군대를 이끌고 궁궐 내로 침입하여 다섯 조약을 강요한바 그것을 엄연히 배척했지만, 적신 이지용李址鎔·이완용李完用·박제순朴齊純·이근택李根澤·권중현權重顯은 그것을 허락하여 이에 분개한 중신重臣 민영환閔泳煥은 자진하고, 대신大臣 조병세趙秉世는 음독자살했다.

위의 언급한 사례는 향산 이만도의 아들인 기암 이중업이 지은 부록 권2 <가전家傳>의 내용을 요약해 인용한 것이다.<sup>38</sup> 이처럼 『향산집』은 검열을 위해 1931년 후반 무렵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보내졌고, 검열한 뒤 1931년 12월 6일에 출판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14책 중 8책은 출판 불허가 조치로 압류당했으며, 6책은 허가를 받고 돌려받았다.

## 5. 맺음말

향산 이만도는 1910년 일본에 의해 나라가 병탄되었다는 소식을 부정하며 24일 동안의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아들 기암 이중업과 지역 사림들은 이만도가 생전에 자편한 ‘인출편’을 바탕으로 문집 간행을 시작하였으나 일본은 저자의 글과 정신을 뿌리 뽑고, 일본에 대한 후인들의 저항 의식까지 제압하기 위해 문집 목판을 불사르고 묘비까지 훼손함

38 일본 이토히로부미가 군대를 이끌고 대궐에 들어오고 이지용·박제순·이완용·이근택·권중현 5적이 위협적으로 조약을 요구하였다. (….) 백관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5적의 매국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윤택받지 못하였고, 대신 조병세와 중신 민영환은 자결하였다.

으로써 『향산집』 간행은 중단되었다.

『향산집』은 1931년에도 출판검열을 받기 위해 14책이 조선총독부에 보내졌고, 검열 후 그중 6책은 출판 허가를 받아 돌려받았다. 이때 돌려 받은 검열본 6책에는 임진왜란 의병, 조선 왕의 호칭 등을 삭제 지시하였고 별도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체크한 부분도 있었다.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8책에 대해 언급한 조선총독부 생산 자료에는 ‘저자 이만도는 을사조약 때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켜 반항하였고, 한일병합이 되자 격렬한 상소문을 남기고 단식하여 자결한 자로 문집의 내용이 치안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허가 차압 처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향산집』은 1910년대에 이어 1930년대에도 출판검열을 받고 간행을 추진하였으나 14책 중 8책이 출판 불허가 차압 조치로 간행하지 못하였다. 1916년 『향산집』의 목판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1931년에는 저자의 사후 20여 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열 후 문집의 절반이 넘는 부분의 글조차 거부했던 일본의 만행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45년에 일본은 패망하였고, 일본의 혹독한 감시에서 벗어난 1946년에 『향산집』은 다시 판각을 시작하여 곧 간행되었다.

• 2022. 09. 30 : 논문투고

• 2022. 10. 05 ~ 10. 31 : 심사

• 2022. 11. 02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響山集』

『響山全書』, 한국국학진흥원, 2007.

『直齋集』(검열본)

柳泳熙, 『求新錄』, 1911.

柳泳熙, 『征邁錄』, 1916.

한국국학진흥원, 『진성이씨 향산고택』, 한국국학진흥원, 2020.

『朝鮮出版警察月報』 第40號, 1932.

곽진, 향산 이만도의 자존적 삶과 순국, 『민족문화』 36, 한국고전번역원, 2011.

박경연, 「일제하 출판검열에 관한 사례연구 — 신득구의 농산선생문집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23, 한국서지학회, 2002.

박균섭, 「선비의 결단 1910 — 향산 이만도의 삶과 삶, 그리고 퇴계학의 지평」, 『현대유럽철학연구』 53, 한국하이데거학회, 2019.

박민영, 「향산 이만도의 생애와 순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2010.

변창구, 「향산 이만도의 절의정신과 구국운동」, 『민족사상』 9-2, 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성봉현, 「일제시기 문집간행과 출판검열 — 송암집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31, 한국서지학회, 2007.

오용원, 「향산 이만도의 현실인식과 사유세계」, 『안동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9.

우진웅, 「회당집의 간행과정과 간역의 특징」, 『국학연구』 27, 한국국학진흥원, 2015.

유춘동,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 검열본과 납본의 현황, 검열의 실태, 검열의 특징과 의미」, 『서지학연구』 75, 한국서지학회, 2018.

- 이규필, 「향산 이만도의 사유와 시세계」, 『대동한문학회지』 65, 대동한문학회, 2020.
- 한기형, 「식민지검열의 한문자료 통제 — 조선총독부 도서관 간행물의 검토」, 『민족문화』 40, 한국고전번역원, 2012.

Abstract

## A Study on the Publication and Publication Censorship of the Anthologies of Hyangsan Lee Man-do

Woo, Jin-woong

Senior Rese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Hyangsan Lee Man-do, a Confucian scholar and independence activist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died after 24 days of fasting, denying it when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His descendants and disciples tried to publish 『Hyangsanjip』, a collection of Lee Man-do's writings. However, it was discontinued in the middle of publishing due to fierce opposition and tyranny by Japan.

『Hyangsanjip』 was sent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31 for publication and was censored for publication. However, six of the 14 books were approved for publication with instructions to delete several phrases. The remaining eight books were not approved for publication, and the collection of writings was seized and not returned.

Later, 『Hyangsanjip』 was engraved in 1946 when it was out of strict surveillance in Japan, and was published in 1948.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ase of censorship in the publication anthology during the period Japanese colonial. In addition, in 1931,

we studied the characteristics and censorship of the 『Hyangsanjip』 for publication which was submit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e looked at the literature record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ch contained records of the remaining eight books that were not returned from Japan.

Key words

: Lee Man-do, Hyangsan, Hyangsanjip, Independence Movement, publication censorship,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